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8주일
제34권 36호(가해) 2014-8-3

[묵상]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군중들을 보시기에,
너무나 측은하여 빵을 많게 하심으로써
배고픔을 면케 해주신다.
단순히 군중의 배를 채워 주기 위해 빵을 많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이야기로만 묵상하면 실수다.
분명히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이야기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함께 나누는' 행위에서 일어났음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이 기적은 제자들이 지니고 있던
'얼마 되지 않는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일어나게 된 것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주님 말씀은
제자들의 사랑에 찬 동참을 요구하신 것이고,
이는 곧,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103위 성당 빈첸시오회도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프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오후 1:00 4째주 - 사목회 오후 1:00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장명화, 김창민 시몬
	(생) 배용우 이나시오 & 이애나, 김민중 안드레아 & 김윤중 유스티노
주 일 낮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박무성, 김혜옥 안나, 주영석 베드로, 김옥순 소피아, 김창운&편성군, 민찬기 요한, 안지조 & 차소저, 유점미 베로니카, 남건우, 소창영 & 소순주, 변세연 대견안드레아
	(생) 김은 안나 & 오애나, 최석원 클레멘스, 박홍룡 요셉, 신경희 클라라 & 윤선화 로사 & 정광미 프란체스카, 석순영 아녜스, 정우석 루카, 배용우 이나시오 & 이애나, 이종원 베드로, 배난군 세레나, 홍석인 체칠리아, 오마우라 수녀, 오창근 베드로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Isaiah) 55,1-3

화답송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
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
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35.37-39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 음 마태오(Matthew) 14,13-21

영성체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
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임당	377	205	182
봉헌	264	264	231
성체	382	289	307
파견	401	245	181

성령과 세인

올바른 성령 이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요엘 3,1).

제1장 성령은 누구신가?

또한 그분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섯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
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탈출 14,21) 이스라엘 백
성을 파라오의 추격에서 구해 주셨으며,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
라기 떼를 몰아다가 당신 백성을 굶주림에서 건져 주셨다(민수
11,31-32; 시편 78,26-28 참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숨과 바람의 형태로 하느님 영의 창조
적 능력을 체험하였다.

2) 생명을 주시는 영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 생명을 주신다. 하느님께서는 “
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 주신 분”(이사42,5) 이시다. 첫 번째 인간 아
담은 하느님의 숨으로써,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창세2,7 참조).
한편, 욥은 하느님의 영을 자신의 존재와 생명의 기원으로 고백
한다. “하느님의 영이 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제게
생명을 주셨답니다”(욥33,4).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의 숨을 선사하신
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조물들에게서 숨을 거두시면, 그것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갈 뿐이다.

또한 하느님의 영께서는 죽음마저도 넘어서신다는 것이 암시
된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환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
으로, ‘마른 뼈’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되살리시는 것을
보게 된다.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 너 숨아, 사방에서 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
였다”(에제 37,5.9-10). 그래서 시편의 작가는 이렇게 노래한
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시편 33,6).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영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찬양한다. “숨 쉬는 것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시편 150,6).

3) 구원하시는 영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다. 하느님께
서는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리시어, 그들
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다.

◀계속▶

예수님 뭇 물고기 한마리, 빵 한개!

열두 제자 뭇 물고기 한 마리, 빵 네 개?

오늘 복음을 제자들 입장에서 살펴보면 속이 많이 상할 만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인데, 예수님 뭇으로 물고기 한 마리와 빵 한 개는 드려야 할 데고, 나머지 물고기 한 마리와 빵 네 개로 열두 제자들이 나눠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인데, 그것을 나눠주라니 우리는 먹지 말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산법이 답답하고 속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계산이나 손익을 재빠르게 하는 것은 제자들 못지않게 저희도 잘합니다. 주일 헌금을 내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1만 원짜리도 아니고 5만 원짜리 한 장만 덜렁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빨리 성품방에 가서 다음 달 매일미사책을 천 원 주고 사고, 헌금 천 원을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죽고 나면 십 원짜리 동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데 우리는 왜 하느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까요?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던 모르는 사람이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호의로 기분이 좋아져서 본인도 뒷사람의 커피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명 가량이 뒷사람의 커피값을 계산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커피값을 낸 것인데 받아서 기분 좋고, 나눠서 기분 좋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나눔은 큰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눌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누려고 할 때 아깝다는 생각,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주저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거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진 것이 별로 없다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칭찬이나 위로, 사랑의 말 한마디를 하는데 돈도,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관심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에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은 크고 화려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작아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사랑과 나눔이 필요한 곳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병원 교우회분들과 매년 성탄 때마다 불우 환우를 돕기 위해 1년 동안 모은 돈을 전달합니다. 작은정성이 매일, 매주, 매달 모이면 1년 뒤에는 큰 힘이 됩니다.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사랑을 담은 행동으로, 넘치고도 남는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김지형 신부/삼성서울병원 원목사제

당신의 끝말 잇기

치매를 염려하는 엄마랑 끝말잇기를 했어요.

엄마의 관심사와 그 시대의 언어를 알 수 있었죠.

혼자서도 끝말잇기를 하시며

종종 전화로 떠오른 단어에 얽힌 추억을 푸시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의 일기장을 엿보는 기분이었어요.

엄마의 단어는 그냥 낱말이 아니라 당신의 생이었던 거죠.

애뜻하면서도 어쩔지 서럽습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래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영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자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치겠습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 ◆ 오늘 주일(3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원금이 있습니다.

8월

◆ 부산교구 사제연수

● 일정 : 8월 4일(월)~8일(금)

● 장소 : 포틀랜드

- 본당신부님께서 사제연수참석하시므로 평일미사(화, 수,목,금)가 없습니다.월요새벽미사는 있습니다.
-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도록 기도드립니다.

◆ 성모승천 대축일미사:15일 (금)

● 아침미사 : 오전 8시30분, 저녁미사 :오후 7시30분

◆ 제3회 백삼위 장학금 수여식 & 리셉션

지난주 주보에 발표한 바와 같이 2014 ~2015년도 백삼위 장학생 세번째 수혜자들이 아래와 같이 선발되었습니다. 축하 드리며, 장학금 수여식과 리셉션 & 뱅컛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시한번 축하 드립니다.

- 선발된 수혜학생 11 명: 박안젤라(안젤라), 박윤지(안나), 박인호(요한), 소윤선(요세피아), 소윤희(미카엘라), 이창희(세라피나), 전주용(미카엘라), 정엘리스(클라라), 최보나(보나), 최형찬(시메온), 한혜림(캐서린)
- 장학증서및 장학금 수여식: 8월10일(주일) 11시 미사후
- 리셉션& 뱅컛 모임:8월10일(주일) 오후 5시, 토요 스시 장학생들과 부모님들을 초대 합니다.

◆ 강동욱 세례자요한 신부님의 신앙특강 안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좋은 반복과 좋지않은 반복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제로한 특강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십시오.

- 제목 : 반복과 신앙
- 일시 : 8월 17일 (주일) 오후 1시 성전

◆ 제27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오늘주일 파견미사

"무엇을 찾느냐? 와서 보아라." (요한 1, 38-39)를 주제로한 남가주 성령 쇄신대회가 오늘오후 5시30분까지 이스트 LA 칼리지에서열리고 있습니다. 참가자들로하여금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여름방학중 '자녀와 함께하는 공예교실'

- 기간 : 8월23일까지(8주간) 매토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성당 1층 회의실 또는 교실
- 강사 : 유선영 클라라(준비물관계로 미리 신청바랍니다.)
- 문의 : 자모회장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310)782-1025

◆남가주 여성 영어 꾸르실료 교육

- 일시 : 8월 28일(목) ~31일 (주일)
- 장소 : 포모나 Cursillo house
- 신청마감 : 8월 11일
- 지도 : 이유진 유스티노 신부
- 자격 : 21세이상 봉사정신이 투철한 가톨릭 신자
- 문의 : kccmsc@gmail.com

◆ 사목위원, 제단체장 임원명단 홈페이지로 보내주세요.

7월부터 2014~2015년 LA 대교구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 본당에서도 평신도 사도협의회가 새로 조직되었습니다. 성당홈피에는 사목조직도와 단체 담당자들이 올려져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사목회 각 분과위원들과 활동단체 (소공동체, 제단체, 산하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한국학교)의 임원 명단을 (e메일주소 &전화번호) 7월 31일까지 페이지 담당자 (103skcc@gmail.com)에게 보내주세요.

☺ 서로 인사 합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8월은 한달간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강태홍 김교복 김병태 김성현 김우용 김재영 김재희 김정엽 김종선 김 준 박상준 박종열 오신재 이경태 이미경 이병우 이현주 최의수 최이원 최태훈 한혁수 이크리스	성전헌금	강인모 강태홍 김교복 김우용 김재희 김정엽 김 준 박상준 이경태 이미경 이병우 이현주 최이원 최태훈 한혁수 이크리스
합계 : \$ 2,675		합계 : \$1,325	
주일미사 헌금 : \$2,641		리사이클링 : \$ 110.80	

공지사항

◆ 제 15차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미주 한국학교연합회 주최

- 기간: 8월 12일(화) ~16일(토)-5일간
- 참가자: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 10명
- 장소: L.A.교육원

◆ 2014~2015연도 1차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연수

- 주제: 학사일정 관리 및 교안작성
- 기간: 8/10/2014~8/17/2014
- 참가자: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 및 봉사자 전원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성마가렛 메리본당 제32회 로미타 페어

- 일정: 9월 5일(금)~7일(주일)
- 장소: 성마가렛메리 성당
25511 Eshelman Ave. Lomita
- 행사내용: 각종 놀이기구와 게임 & 음식판매
- 경품권 판매: 백삼위본당 8월 17일
- 문의: ☎(310)326-3364

◆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모 안토니오신부님의 사제서품 55주년 및 팔순감사미사를 봉헌하오니, 많은 기도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8월 23일(토요일) 오후 5시
- 장소: 성 그레고리 성당
900S. Bronson Ave. L.A., CA 90019
- 연락처: 이 미카엘 ☎(213)700-1788

◆ 성 아그네스 성당: 예수회 성경대학 7학기강의안내

- 주제: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본 예수생애2"
- 강사: 송봉호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 관구)
- 장소: 성 아그네스회관
- 일시: 8월 22일(금), 23일(토) 24(주일)
- 수강료: \$ 50 (\$20/1일) ☎(323)731-4433 (사무실)

◆ 제3기 성 요셉 아버지학교

- 일정: 9월 7, 14, 21, 28일 (4주일)
- 장소: LA 성 아그네스 천주교회
- 문의: 오재민 바오로 ☎(562)505-8070

◆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19번 피정으로 초대합니다.

- 기간: 2014년 9월~2015년 6월
- 내용: 일상의 삶 안에서 말씀을 통한 기도 9개월, 매주 1회 개인의 영적 지도자와 만남, 매월 1회 단체기도 체험 나눔
- 주관: 로올라 영성센터(오랜지시)
- 문의: 전아네스 ☎(213)507-1144

노공동체 7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오신재 메히틸다 991-4838 8/8(금) 오후 6시 성당회의실
	2	김찬구 요한 701-6343	민원희 안나 701-6343 8/9(토) 오후 7시 성당 강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8/15(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박인식 토마스 953-9597 8/16(토) 오후 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정남형 알베르토 991-8556 8/9(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김현숙 벨라텃타 617-1132 8/9(토)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1	김준 방지거 625-3312	엄영숙 마리아 625-3312 8/22(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634-6923 8/15(금) 오전 10시30분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8/8(금) 오후 7시 성당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율리아 404-1607	황안젤라/임젤라 404-1607 8/11(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윤희동안토니오 749-3151 8/10(주일)오후 1시 하버시티파크
	3	1,2반과 같음	
P. V.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고규제 체칠리아 531-0123 8/8(토)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793-6157 8/8(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8/9(토) 오전 11시 De Portola 팍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8/12(화) 오전 10시 30분 성당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	--

나는 삼고(三高) 중 이고(二高) 라서

여행 중에 들은 가이드의 말이 자주 생각납니다. 모든 가이드가 싫어하는 게 삼고(三高) 즉, 고학력, 고소득, 고연령입니다. 고학력은 가이드의 설명이나 해설을 고쳐주느라 남들의 감탄과 감동까지 망쳐버리고 또 수능 문제도 아닌데 대충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늘 호감하는 고소득자는 특히 자연관광을 싫어하는데, 맛있는 음식, 자연뿐인 관광지와 지루한 해설, 불편한 침구 등에 불만과 짜증이 가득합니다. 안락한 일상을 떠나 사서 고생하자는 여행인데, 낯선 것과 마주치는 기대감과 호기심, 놀라움과 감동 등을 전혀 나타내지 않아 색다른 기분전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연령도 여간해서 안 웃는답니다. 웃겨서 분위기 잡으려는 가이드의 노력은 동정조차 안 한답니다. 더 웃긴 일을 너무 많이 겪어낸 고연령은 유머와 위트를 잃어버렸답니다. 우습지 않아도 분위기 맞추려 웃어주며 긴장을 풀어야 즐거운 여행이 되는데, 고연령일수록 자기도 안 웃고, 남도 못 웃게 하고, 웃기려는 가이드까지 맥빠지게 한답니다.

유머와 위트는 하느님이 주신 최고 선물인데도 말입니다. 애창곡이 '거짓말이야'인 친구는 비둘기도 여의도에서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고 우짖는다고 웃깁니다. 자기도 잘 웃고, 남을 웃기기만 해도 항상 기뻐하는 생활 신앙인인 그 친구가 생각하면, 저는 혼자서도 웃게 됩니다.

삼고는 하느님도 제일 싫어하지 않을까요? 하느님이 사망자로 뽑으신 이들은 한결같이 오만한 이들이었습니다. 특히 모세와 요셉일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 최고 문명국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통치자)로서 최고 학문과 기예를 연마했지만, 처갓집에 빌붙어 짐승냄새에 찌드는 양치기 40년 동안에 왕자자격을 말끔히 세탁시킨다음에야, 민족 지도자로 40년을 사셨었습니다. 요셉도 족장인 아버지의 특대를 받은 귀공자로 형들보다 우월하다고 자고(自高)했던, 그 오만과 우월감을 노예와 죄수생활로 13년간 다 세탁시키고서야 이집트의 총리로 사셨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어온 나머지 신앙의 허실을 알만큼 안다고, 세상 무엇도 알만큼 안다고 자고(自高) 해온 저는 고학력, 고연령의 이고(二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고소득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늘 제 자신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배워 너무 많은 나들로 꽉 찬 제 속은, 하느님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강론은 망망하고 성경도 늘 뻔합니다. 게다가 신교에서 개종했으니 저절로 비교와 비평도 합니다. "인간을 그렇듯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창조 첫날에 만드시기 왜 꼴찌로 지으셨을까요? 그랬더라면 아담은 일주일의 꼬박 금식했어야 했고 이브를 먼저 지으셨더라면 출산 때 진흙 항아리가 터져 버렸을 거라, 그래서 하느님은 시인으로 지으셨다. 이브를 보자마자 '내 뼈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라는 절창시를 토해 낸 아담은 시인이라."는 등 혼자

상상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무수히 밀줄 친 성경을 새 것으로 바꿔 새로 밀줄 쳐가며 읽지만 숙제하듯 읽고, 입에 발린 감사기도와 습관적인미사참례, 제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느님은 "거짓말이야"를 불러봐! 네 친구를 시켜 네게 준 노래야."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유안진 글라라/시인,서울대명예교수

<전례 상식>

영성체 한 시간 전부터는 물도 못 마시나요?

☞ 공복재(空腹齋)란 '공심재(空心齋)'라고도 하는데,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기 위해 성체를 모시기 일정 시간 전부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공복재 규정은 사제와 신자 모두 영성체 전 한 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물론 제외). 그리고 병자, 노약자, 간병인 등에게는 공복재 시간을 영성체 전 15분으로 더욱더 축약시켰고, 중환자의 경우에는 공복재를 면제시켰습니다. 그러나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 합당한 준비를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흔히들 개신교 신자들에게 천주교는 성모님을 믿는 종교라는 오해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지나치다 싶을 만치 과도하게 성모신심에 빠져 있는 신자들을 보면, 그런 오해도 살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주교는 다른 성인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인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제가 퀴즈를 하나 내 볼까 합니다.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의 어머니입니다.

구세주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연결되어 있고 가장 일치를 이룬 사람은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과 함께 태어났고, 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쓰이기 전에 예수님의 삶은 이미 성모님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 가시 전에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성모님이 자신의 어머니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어머니, 곧 교회의 어머니라고 공포하십니다.(요한19)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회를 지으면 항상 성모상을 세우고 성모님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로 받아 들이고, 성모님은 하늘나라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개신교에서처럼 성모님은 그저 대리모 정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가 어떤 성인 성녀들보다 공경하고, 본받아야 할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홍성민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